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7호 【루계 제23089호】 주제99 (2010)년 5월 17일 (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희택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동지, 리제강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의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시였다.

몸결에도 그리던 아버지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한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청년건설자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할 대단한 목표를 내걸고 치열한 돌격전을 벌림으로써 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있다.

청년건설자들은 물길굴뚝기를 비롯한 가장 어려운 건설대상들을 성과적으로 끝낸데 이어 전반적인 공사들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서두수의 상류에 거대한 언제가 쌓여져 대인공로수가 형성되게 되면 많은 전기를 생산하여 나라의 전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위치도 좋고 실리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설계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또 하나의 만년재부가 일떠서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산협을 가로지르며 길길이 뻗어간 언제와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작업장들을 바라보시면서 청년건설자들이 <청춘을 빛나게 살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방대한 작업량을 해체하는데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조국의 흥성번영을 위하여 충성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전체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새 세대 청년건설자들이 령하 30~40℃의 강추위가 계속되는 엄혹한 자연환경과 불리한 작업 조건에서도 방대한 발전소건설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해벌 결심을 안고 혁명적군인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지닌 불타는 충성심과 숭고한 조국애를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선봉부대답게 만년시련을 파감히 뚫고 헤치며 후대들에게 멋쟁이 물려줄수 있는 훌륭한 창조물들을

자력으로 도처에 수많은 일떠세운것은 참으로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이 귀중한 결실은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청년들만이 지닐수 있는 위대한 정신력의 빛나는 발현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이 창작한 문예작품집들을 보여주시면서 발전소건설과정에 청년들속에서 무수히 꽃피던 아름다운 소행자료들을 들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글줄마다, 화폭마다에 고동치는 청년전위들의 순결한 량심의 호소를 읽으시고 체험자들만이 느낄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잘 반영된 좋은 작품들이라고 하시면서 투쟁과 노래속에

청춘을 빛내여가는 그들의 보람찬 삶을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만년재부로 되고있는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는 선군시대 청년들이 바친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다고 하시면서 가장 활력있는 전투부대인 청년대군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주역을 담당하고있기에 선열들이 개척한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은 굳건히 이어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강성대국건설에 기여하게 될 나라의 재부이므로 만년대대로 잘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에서 주택건설을 선행시킨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철거세대주민들의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앞으로 발전소가 완공되면 침수지역의 많은 집들을 옮겨야 하므로 철거세대주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주택건설을 비롯한 해당한 대책들을 미리부터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은 악조건에서 많은 작업량을 처리해야 하는 대공사인것만큼 내각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과 련관된 부문에서 적극 도와주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의 제일 힘든 대목을 넘긴 조건에서 조직사업만 잘 짜고들면 완공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다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에 모든 령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용감무쌍한 건설자들이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발전소를 만년대대로 창조물로 질적으로 건설함으로써 혁명과 시대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돌격대의 지휘성원들은 건설자들의 비등된 열의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짜고들고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완강한 실천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며 특히 전투원들에 대한 후방 공급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의 청년건설자들이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건설공사를 하루빨리 앞당겨 끝냄으로써 선군조선청년들의 영웅적기개를 더 높이 떨쳐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청년건설자들은 외국방문의 길에서 접쌍인 피로도 무실사이없이 머나먼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고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할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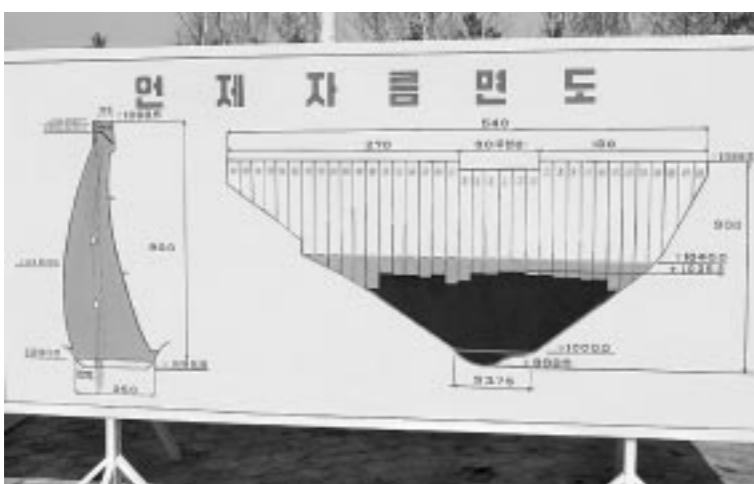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백 두 산 선 군 청 년 발전 소 건설 장 을 현 지 지도 하시 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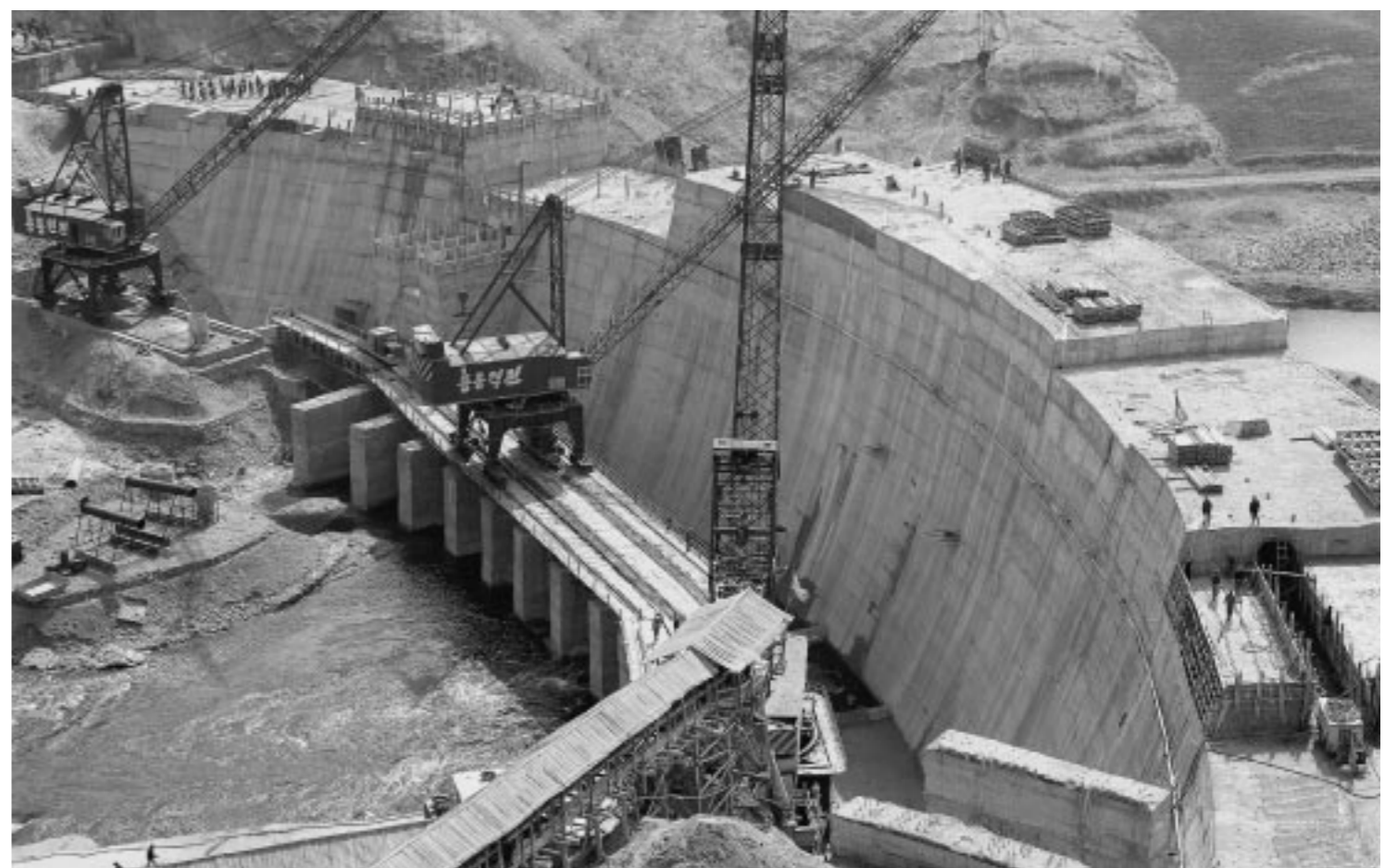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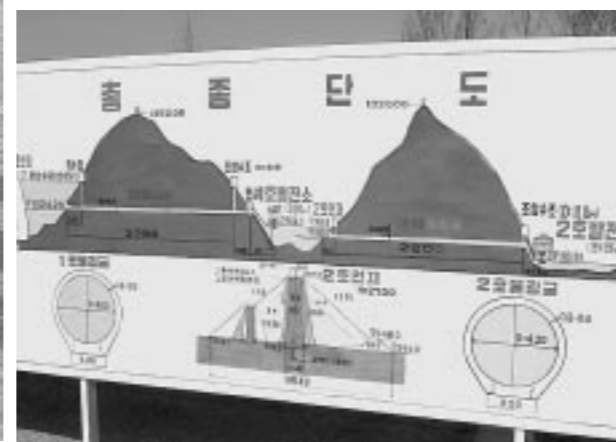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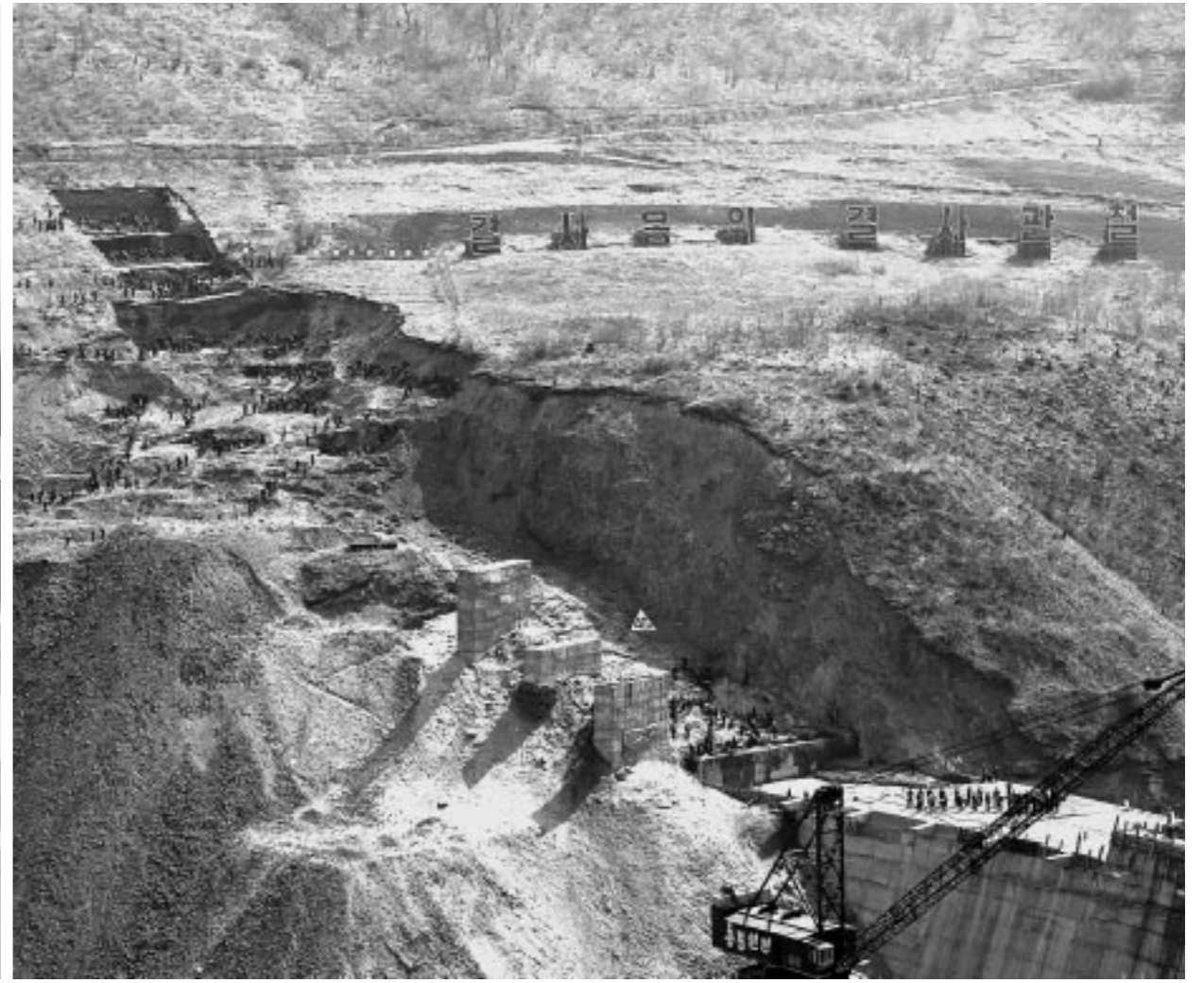


**건설 진행 정 형** (4월 30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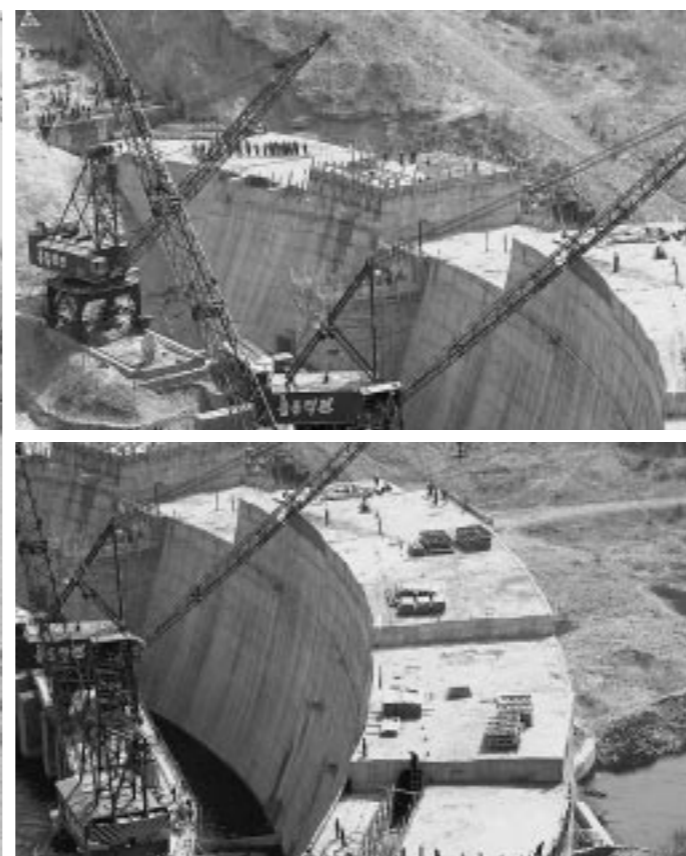
|   |  |
|---|--|
| <p>△ 1호발전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 240MW</li> <li>-부속공사: 100% (17.7%)</li> <li>-발전기본안착공사: 100% (12015년 1월 15일)</li> <li>-4호발전기: 1101010 (27.2%)</li> <li>-발전소: 100%</li> <li>-2호발전기: 100%</li> <li>-3호발전기: 100%</li> <li>-4호발전기: 100%</li> <li>-5호발전기: 100%</li> <li>-6호발전기: 100%</li> <li>-7호발전기: 100%</li> <li>-8호발전기: 100%</li> <li>-9호발전기: 100%</li> <li>-10호발전기: 100%</li> </ul> | <p>△ 2호발전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체: 60% (5800㎡)</li> <li>-교각공사: 50% (1320㎡)</li> <li>-발전기본안착공사: 100% (1590㎡)</li> <li>-사석벽조공사: 80% (2200㎡)</li> <li>-부속공사: 2200㎡ (783%)</li> <li>-발전소: 48500㎡ (32015년 64%)</li> </ul> |
|---|--|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백 두 산 선 군 청 년 발 전 소 건 설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백 두 산 선 군 청 년 발 전 소 건 설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었 다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백 두 산 선 군 청 년 발 전 소 건 설 장 을 현 지 지도 하시 었 다

